

‘상생의 시대’ 펼쳐질 새 시간관을 기대하며

우리 삶에 어울리는 역동적인 시간관을 모색해본다

조우석 | 문화일보 문화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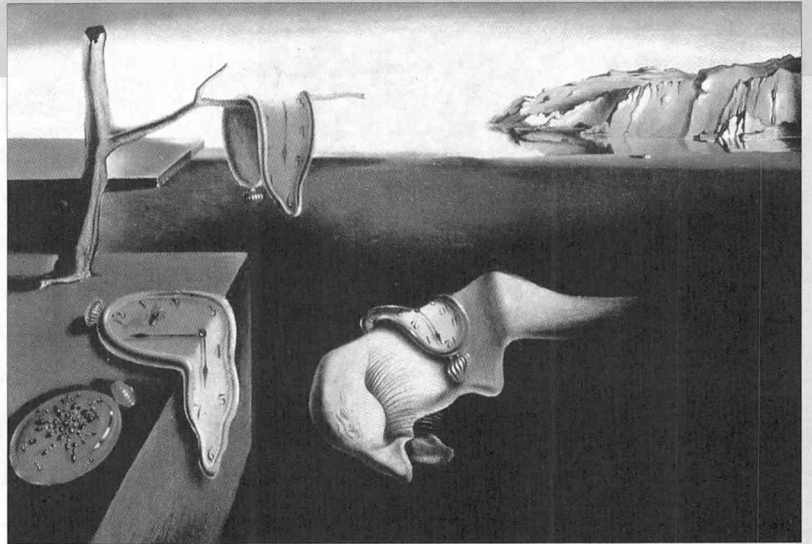
계몽주의에서 출발한 서양의 근대적 시간관에는 사람이 부재한다. 그러나 탈근대를 맞이해 반성을 모색하고 있는 서양에 비해 우리는 서양보다 더 서양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새 천년을 앞두고 우리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시간관은 고대 사유의 재구성 과 동북아 사상의 통합에서 그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다.

다소 영똥한 말로 들리겠지만, 요즘 클래식 음반계에 부는 열풍 중의 하나가 탱고 음악이다. 최근 들어서는 탱고와 닮은 꼴인 포르투갈의 전통 대중음악 ‘파두’ 까지 국내에 상륙해 흥미로운 ‘음악의 다변화 현상’을 암시하고 있다. 이중 ‘파두’의 경우 영어 ‘fate’, 즉 운명을 뜻하는데, 라틴어 ‘Fatum’에서 유래했다. 고대의 스토아 철학은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데카르트로 이어지는 주류에 가려 주변부 철학으로 밀렸지만, 이 글에서 상당한 암시를 전해주는 고대사상으로 주목하려 하는데, 이 스토아 철학의 핵심개념이 바로 운명(Fatum)이다.

인간이 탈락된 계몽주의적 시간관

다소 끈적거리는 정조의 ‘파두’나 탱고음악에 대한 내 나름의 어떤 직감을 고백하면서 새 시간관 모색의 실마리를 건져보자. “탱고는 서양 근대음악과 확연히 다르다. 서양 근대음악의 경우 실은 무수히 가능한 음의 영역 중 극히 제한된 세계를 전제로 한 음악일 뿐이다. 결정적으로 그들 음악에는 ‘사람’이 없다. 넘치는 감정의 분출을 담은 낭만시대 음악이 ‘공소한 펜타지’로 치닫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반면 탱고와 파두에는 인간, 즉 몸을 갖고 움직이며 삶을 영위하는 구체적인 인간의 숨결이 살아 있는 것이다.”

나는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 “그렇다면 ‘인간의 부재’ 현상이란 음악뿐 아니라 시간관을 포함한 ‘서양 근대’ 전반의 특징이 아닐까. 철학 등 사유체계에서 가장 명료해지듯 서양 근대란 극도로 제한된 사유/가능성의 영역 중 일부를 극대화한 역사상 유례 없는 변종의 문화가 아닌가” 하는 것이 내



판단이다. 비약이 쉬일 수도 있고,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런 판단은 이 자리의 주제인 시간관에서도 재확인된다. 장르별 구분과 상관없이 설득력 있는 유비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다. 즉, 시간관에 국한해 봐도 서양이 어떤 형태로든 자기반성을 준비하고 있는 사정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비서구는 서양 이상으로 더 서양적이 돼버렸다. 이런 사정에서 어떻게 새 밀레니엄을 앞두고 동북아 우리 고유의 시간관을 정립할 것인가. 이 글의 주제 자체가 새로운 문명권의 탄생을 전제로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특정인의 독자적 입론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기에는 턱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의 독자적인 시간관이란 어떠한가’ 하는 문제의 탐구는 우리가 침윤돼 있는 서양 근대과학의 시공간 좌표의 실체인 계몽주의적 시간관과 이것의 극명한 상징인 뉴튼적 시간관의 실체를 정확하게 기능하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

주로 저널리즘을 중심으로 종말론과 함께 패키지로 엮여 논의되는 밀레니엄 담론이 한창이지만, 쏟아진 신간들 중 신뢰할 만한 《시간의 종말》(클리오)에서 확인되듯, 현재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시간관의 직접적인 출발은 서구 계몽주의다.

우리의 새로운 시간관은 서구 형이상학, 노장사상, 불교와의 통합에서 찾아야 한다. 사진은 달리의 《기억의 잔재》.

19세기 계몽주의는 자기 시대의 진보와 성취를 '빛'이라고 규정하는 반면, 과거 암흑의 옛 시대를 '두려움의 시대'로 규정했다. 물론 작금의 1천년, 2천년을 둘러싼 '두려움의 신화'는 <요한계시록>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 점은 <요한계시록>이 '희망에 관한 증언'이라는 사실과 상관 없는 대중 심리학적 진실이다.

서양의 근대 사유에 대한 반대명제

문제는 《시간의 종말》에서 고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가 확인시켜주듯 계몽주의의 시공간 관념을 상징하는 뉴턴조차도 지구의 나이가 40억년에 가깝다는 사실에 실은 전혀 깜깜했다. 놀랍게도 '1만년 이전'으로 봤다고 한다. 요즘 아이들의 장난감으로도 등장하는 공룡의 존재를 포함해 지구 위에서 펼쳐진 생물학적 종의 역사에도 무지했다. 따라서 계몽주의자들은 '겨우 20만년 전 지구 위에 나타난 이상한 종(種)인 인류'가 35억년 장구한 역사의 박테리아에 비겨도 '겨우 눈짓에 불과한' 짧은 역사를 갖고 있음을 미처 알 수 없었다. 금세기 후반 장삼이사들의 과학지식 수준을 현저하게 밀도는 상태에서 그들의 시간관을 펼쳐온 것이다.

따라서 제이 굴드 같은 일급 과학자가 책에 실린 인터뷰에서 "인간의 오만에 적절한 균형과 상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는 것도 당연하다. 금세기 후반 서구지성사의 한 특징인 자기반성 내지 자기혁신의 모색인 것이다. 자기반성은 너무도 뚜렷해서 최근 봄을 이루는 '인문적 분위기의 자연과학서' 중 으뜸인 린 마굴리스의 《생명이란 무엇인가》(지호)에서도 확인된다. 이 책은 근대적 시간관의 생물학적 표현인 다윈적 의미의 '기계론적 분위기의 진화론'에 대한 반대명제로 읽힌다.

앞에서 서구 근대의 성격 자체가 '인간을 탈각시킨 패러다임'이라고 지적했지만, 이런 극도의 추상적 성격의 시공간관에 대한 매력적인 설명으로 딱 떨어진다고 판단된 것이 최근 내가 매료된 이정우의 탁월한 질 들뢰즈 철학연구서 《삶·죽음·운명》(거름)에 나오는 대목이다. 이 교수의 규정대로 "근대과학의 세계이해란 시간관을 포함해 극히 인위적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이해"라는 것이며, 그 결과 인간의 소외, 자연의

피폐함과 같은 근대과학의 폐단도 나온다는 것이다.

"근대 물리학에서는 사물에 대한 물음이 없습니다. 나아가 질적 성질에 대한 물음도 없습니다. 지구와 태양을 연구할 경우, 지구가 무엇인지, 태양이 무엇인지,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사는지 하는 문제들은 물리학의 관심 바깥입니다. 근대물리학이 관심있는 것은 지구와 태양이 떨어진 거리, 지구가 태양을 도는 속도, 그리고 질량 같은 것입니다. ... 결국 근대물리학이란 양화(量化) 가능한 몇 가지 성질들과, 그 성질들 사이의 함수관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근대 과학은 사물이 임의로 설정된 좌표계에서 차지하는 시공간적 위치만 물어보지요. 그리고 그 위치의 이동을 운동이라고 정의하고, 그 공간이동의 빠르기를 규정하기 위해 시간개념을 도입합니다."

너무도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뉴턴적 시간관이란 우리가 철두철미 붙들려 있고, 현실적으로 인류사의 가장 빛나는 성취 중의 하나인 근대 세계를 창출해낸 무시 못할 매력을 갖고 있음도 분명하다. 그러나 그것은 고대 이래 각 문명권에서 독자적으로 창출해냈고 생활세계를 이뤄왔던 무수한 시간관 중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 역시 이제 상식이다. 게다가 이제는 근대 서양의 시간관이 극심한 피로도까지 누적시키고 있다는 속사정도 우리는 알고 있다. 사실 서구인 상당수가 윤희사상을 진지하게 믿고 있으며, 선과 명상에 사족을 못 쓰고 있는 사정도 그런 피로도가 대중적으로 반영되는 한 형태라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과 자연이 넘나드는 시간관을 찾아서

그러면 동양, 그중에서도 동북아에 삶의 등지를 틀고 있는 우리는 어찌해야 하는가. 삶의 긴장감을 잃은 채 서양의 관성에 이끌려 반성없이 끌려갈 수도 있고, 아니면 신과학 등 유사과학으로 빠져들 수도 있는 분기점에 우리는 아슬아슬하게 서 있다. 그러나 거대한 문명의 새 계절이 시작되고 있는 징후들이 보이는 지금은 예전과는 또 다른 기회를 안겨주고 있기도 하다. 물론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에서는 영 맥을 못추고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여전히 유용한 것도 사실인 뉴턴적 시공간이라는 것을 완전히 용도폐기할 수는 없다.

그 서양 근대의 성과를 등에 업으면서도 우리 체질과 삶의 세계에 어울리는 역동적인 새 시간관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아니 그 질문이 너무 거대하다면 그 모색의 실마리는 어떻게 잡을 것인가. 우선 새 시간관이 필요한 충족요건에는 인간과 자연 사이의 위상학의 해결이 필수다. 인간과 자연의 사이가 엇나가거나 '창 없는 단자(單子)'처럼 격리됐던 근대와 달리 인간과 자연이 서로 넘나드는 시간관이어야 한다는 말이다. 또 새 시간관은 모더니티에 대한 진지한 반성으로서 제기된 탈근대적 논의와 무관할 수 없는 노릇이다. 그러면서도 엉거주춤한 스타일의 절충주의도 피해야 옳다. 이 경우 힌트는 앞에서 언급한 이정우의 탁월한 신간을 통해 얻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언급하자면 스토아 철학을 포함한 고대 사유, 고대 시간관의 현대적 재구성 쪽이 아닐까 싶다. 왜 그런가. 이정우는 이렇게 말한다.

"스토아 철학은 인간과 세계를 엄밀하게 따로 떼어놓고 보는 근대적 사고와 다른 유형의 사유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외려 동북아적 사유와 매우 통하는 바가 있다. 어떤 면에서는 고대의 사유가 훨씬 매력이 있다. 분과화가 이뤄지기 이전에 세계를 총체적으로 사유한 철학들이기 때문이다."

여전히 애매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인(目的因)이라는 용어에서 보듯 현대인들에게 '앞만 쳐다보고 달려라'고 닦달하는 식으로 현저하게 미래에 무게 중심이 놓인 시간관과 달리 '현재에 충실한, 지금의 삶에 충실한 시간관'일 것이라고 두리뭇실하게 설명할 수밖에 없다. 그 이상의 논의 진도는 현재 학계 논의의 진척이나 온축으로 보아 실제로 무리다. 만약 약간의 첨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철학자 질 들뢰즈의 노마디즘(유목주의) 철학에서 나타나듯 서구 형이상학의 변화된 한 정점과, 동북아 사유의 정수인 노장사상, 불교사상과의 통합에서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교수는 그 작업을 '현재 사상에 던져진 화두'라고 거듭 설명한다. 새 시간관 모색을 위해서는 곱씹어볼 필요가 있는 핵심대목이다. ●